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7호 [루게 제23309호] 주체99(2010)년 12월 23일 (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희천청년전기련합기업소와 희천발전소 건설장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청년전기련합기업소와 희천발전소건설장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박도춘동지, 최봉해동지, 태중수동지, 김평해동지, 리명수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자강도위원회 책임비서 주영식동지를 비롯한 도와 기업소의 책임일군들과 발전소건설에 참가한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당창건 65돐과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공과로 성대히 맞이한 승리자의 긍지드높이 년말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기업소의 로동계급과 발전소건설자들은 충천한 기세로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련일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청년전기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신 다음 새로 만든 전기제품들을 보시면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짧은 기간에 최신기술에 기초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 연구개발하여 전기제품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질 좋은 여러가지 전기제품들을 보시고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창조적혜와 협조를 강화하여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함으로써 생산

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두뇌전, 기술전으로 우리 조국을 세계에 빛내이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첨단돌과전을 힘있게 벌린 결과에 의해 마련된 귀중한 열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모든 전선에서 첨단을 돌파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할데 대한 당의 구호를 받들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짧은 기간에 최신식전기제품들을 만들어낸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자랑찬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현대적인 기계들도 척척 만들어내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현실은 허리띠를 조이며 애써 마련한 자립적인 주체공업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파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업소에서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기술개조사업을 힘있게 추진함으로써 제품의 질과 량을 급격히 높일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김일성민족의 무궁무진한 정신력과 창조적재능, 튼튼한 기술경제적잠재력을 발동할 때 그 어떤 최첨단요새도 능히 점령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기술의 종합적발전과 지식의 대대적인 축적, 그 적극적인 활용에 의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지식경제시대에는 첨단돌과의 개척자가 미래의 정복자이며 승리자이라고 하시면서 강성대국건설대전의 모든 전선에서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술혁명을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데서 청년전기련합기업소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신념의 구호를 들고 당의 선군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온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앞으로도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마감단계에 들어선 희천2호발전소 언제건설장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또다시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는 군인건설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듭되는 현지지도에 무한히 고무된 군인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언제공사량의 96%를 수행함으로써 다음에 4월까지 희천2호발전소 언제공사를 완전히 끝낼수 있는 놀

라운 성과를 달성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여러차례 건설장에 찾아오시며 주신 전투적과업을 심장에 받아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희천2호발전소 언제는 드디어 선군조선의 기상인양 하늘높이 솟아올라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발전소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높은 산협을 가로지르며 거창하게 솟아오른 언제우에 오르시어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추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격전장을 방불케 하는 건설장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이 눈부신 속도로 추진되고있는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종전같은 10년이상 걸려야 할 방대한 작업량을 불과 1년반사이에 해제것은 참으로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이신 우리 군인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선군조선의 위대한 기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요구라면 천만산악도 단숨에 떠옮기는 결사관철의 투사들인 인민군인들의 정신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하시면서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군대의 이 위대한 힘을 당할자는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2호발전소건설에 참가한 군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여러건의 새 기술과 공법을 창안도입함으로써 많은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공사속도를 높인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일본새를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부대는 지난 기간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친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가지고있는 힘있는 부대, 용감한 부대라고 하시면서 희천발전소건설에서도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부대군인들의 자랑찬 위훈은 강성대국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희천청년전기연합기업소와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김정일동지께서는 불수룩 장관인 희천 2호발전소 연제에는 군인건설자들이 바싹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적군인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과감히 박차고 낮과 밤이 따로없는 치열한 전투를 벌림으로써 언제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는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창조자들인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한 발전소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대규모의 희천발전소건설을 2012년전으로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렸다고 하시면서 혁명적군인정신,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눈부신 투쟁을 벌리고있는 전체 군인건설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 하나만 놓고보아도 우리 군대의 정신력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 도처에 일떠서고있는 선군시대의 창조물들은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머지 않아 희천2호발전소가 완공되고 대인공호수가 펼쳐지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승리의 그날을 더욱 앞당기기 위하여 과감한 돌격전을 벌려나가자고 다시금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들끓는 전투현장에서 창작한 연필화를 비롯한 문예작품들을 보시면서 건설투쟁 과정에 군인들속에서 무수히 꽃피어난 미담들을 들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글쭙하다, 화폭마다에 어려있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려는 열렬한 사랑과 헌신성을 읽으시고 혁명적군인정신을 지닌 체험자만이 뜨겁게 느낄수 있는 숭고한 사상감정이 잘 반영된 좋은 작품들이라고 하시면서 투쟁과 노래속에 청춘을 빛내여가는 그들의 참된 삶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은 강성대국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선진적인 과업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발전소건설을 앞당겨 끝내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급격히 장성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력생산을 높이는것과 함께 새로운 발전소들을 도처에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출력이 높은 희천발전소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내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종전같은 10년 이상 걸려야 할 대규모의 희천발전소를 2~3년안에 건설한다는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과업이지만 군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고 위력한 사회주의적자립적공업토대가 있는 한 능히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전으로 발전소건설을 끝내기 위해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일대 공격전을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공사속도가 비상히 빨라지고있는것만큼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전국이 달라붙어 물질방면의 지원을 주고있는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련관된 모든 단위에서 필요한 자재와 기계, 설비들을 제때에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사속도를 계획대로 보장하자면 건설지휘를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발전소건설현장지휘부에서 전투작전을 치밀히 세우고 공사전반에 대한 장악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는 후대들에게 물려줄 만년대계의 귀중한 재부이므로 최상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장하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건설에서 공명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건설자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는것은 건설속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사소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숙식조건을 비롯한 생활보장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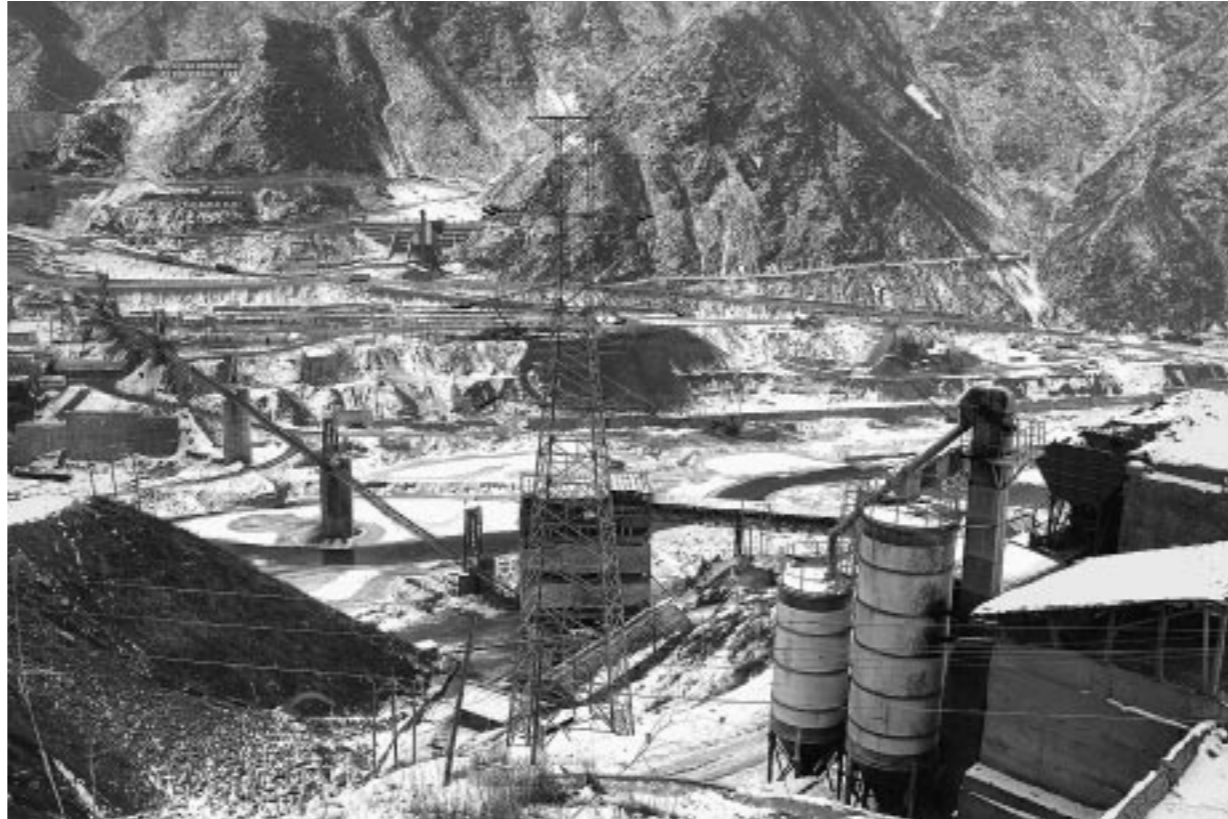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 건설자들의 투쟁기세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고 하시면서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과 일군들은 전투원들의 비동된 열의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짜고들며 완강한 실천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사에 참가한 전체 군인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이 희천발전소건설에서 혁명적군인정신,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여 새로운 속도, 희천속도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질풍같이 내달림으로써 영웅조선의 혁명적기상을 다시금 만방에 높이 떨쳐가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발전소건설자들이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희천발전소건설을 앞당겨 완공함으로써 당의 믿음과 기대에 자랑스런 위훈으로 보답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희천청년전기연합기업소와 희천발전소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건설자들은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연말까지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강성대국건설대전을 진두지휘하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었다.

본사정치보도반



내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찬연히 빛나는 백두산녀장군의 불멸의 업적

선군조선의 영원한 미래를 축복하시는 우리 어머니님

경사로온 날, 그리움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세기를 이어 인류가 낳은 걸출한 여성혁명가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혁명의 어머니인 선군조선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3돐이 되는 뜻깊은 12월 24일!

결절한 그리움에 휩싸여 회심의 오산덕으로, 불은기 휘날리는 주작봉마루에 걸렸이 달려가는 천만군민의 심정은 어찌하여 뜨거움에 젖어드는 것인가.

서른두해라는 너무도 짧은 한생의 순간순간을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혁명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불태우시며 조선의 자랑스런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시고 위대한 선군태양을 안아올리시어 내 조국의 천만민마를 펼쳐놓으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혁명의 총대가 번쩍이는 천리방천소소들과 혁신과 비약의 숨결 약동하는 일터마다에서 환희로운 날을 마중해가는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마음속에 백두산녀장군의 해빛같은 미소가 깔렸어 어리어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조국과 인민 앞애 남긴 고귀한 업적은 길이길이 빛날것입니다.》**

엄마친 꿈결에도 그리워 잠입해 불타는 조선의 어머니인 김정숙동지의 탄생일을 맞이하는 뜻깊은 12월에 유서깊은 회평당을 찾으신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잊을수 없다. 그날 오산덕에 모셔진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찾으시어 승교한 경의를 드리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어머니과 얼마나 의미깊은 심정속대회를 나누시였으랴.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말씀하시였다. 어머니의 생은 비록 짧았지만 조국의 해방과 우리 혁명의 승

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천위천사의 빛나는 한생이었다고. 천만민의 무게가 실린 그 말씀을 새기며 우리 모두는 혁명의 영원한 어머니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벅차게 안아 본다.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귀감, 한없는 겸허성과 소박성, 혁명적동지애, 고결한 인성정신 등 인간이 지닐수 있는 고결한 품성을 최상의 경지에서 체현하신 성인, 공화국의 통성변역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잠시의 휴식도 모르신 탁월한 여성정치활동가...



수령결사옹위의 귀감이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어머니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 넘쳐나다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어머니의 동상앞에 서면 이런 배후의 감정이 없없이 복받쳐올라 마음을 진정할수 없다. 정령 미례의 태양을 안아올리시어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굳건히 이어놓으시고 오늘도 불은기와 함께 계시며 후대들을 혁명의 한길로 불러주시는 백두의 너장군 김정숙동지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그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을것인가.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업적을 추억할 때 우리

의 눈앞에 펼쳐 떠오르는것은 한몸이 그대로 생애, 방패가 되시어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바쳐 결사옹호보위하시는 모습이다. 백두산녀장군께서 잘록목과 흥기하, 대사하지기를 비롯한 수많은 진정들에서 율리신 수령결사옹위의 총성!

그것은 혁명의 길에 나선 전사는 자기 수명을 어떻게 받들어 모셔야 하는가를 력사앞에, 후대들에게 가르쳐준 메아리이며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우리 군인들을 혁명의 수뇌부위사

를 위하고 힘있게 부르는 영원한 신념의 표징이다. 엄숙한 시련의 시기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지켜싸우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굴의 투쟁모습은 우리를 수령옹위의 성스러운 투쟁으로 떠밀어주고있다.

야당단원들은 우리 혁명의 미래이고 메일의 유격대원들이며 장차 해방될 새 조선의 주인공들이라고 하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바라시는데로 우리

들을 폭풍우속에서 훌륭히 교양하고 단련시켜나간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 그의 열렬한 미례판은 오늘 이 땅에 수령결사옹위의 총대술을 역세게 키워냈다. 참으로 준엄하고 시련에 찬 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어머니수령님의 안녕과 혁명사상을 결사옹위하시어 우리 인민이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지닌 수령복을 지켜주시고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꽃피우신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무궁번영할 김일성민족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우리의 지도자는 백두산녀장군 김정숙.》** 《배후작전연합대장 김정숙.》 《백두산녀장군 신출귀몰 천지 주름잡으며 왜놈 축전다.》 《항일녀장수 회합뜻 받들어 싸우자 1941.9.》 《백두산녀장수 따라나서라 1937.》 《백두산 항일녀장수 김정숙장군은 조선이 낳은 불세출의 녀걸이다...》

조국땅끝에서 발굴된 혁명적유물들을 통해서도 우리

들은 무궁번영할 김일성민족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우리의 지도자는 백두산녀장군 김정숙.》** 《배후작전연합대장 김정숙.》 《백두산녀장군 신출귀몰 천지 주름잡으며 왜놈 축전다.》 《항일녀장수 회합뜻 받들어 싸우자 1941.9.》 《백두산녀장수 따라나서라 1937.》 《백두산 항일녀장수 김정숙장군은 조선이 낳은 불세출의 녀걸이다...》

조국땅끝에서 발굴된 혁명적유물들을 통해서도 우리

변함없이 보위하신 잊을수 없는 나날들, 부령의 갈림길과 보령강개수공사장, 미림밭과 염본진...

어머니수령님의 건당, 건국, 건국로선을 앞장에서 받드시고 새 조국건설로 들끓는 조국땅에 어머니나 찾고있으시며 새겨가신 어머니의 숭고한 자욱자욱은 오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을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특히 건국사에 남기신 백두산녀장군의 업적은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혁명을 쟁취적으로 끝까지 수행하려는 의지와 신념을 가져야 한다. 반드시 어떤 큰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만 나라를 찾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대의존의 사상으로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 민족의 발전과 우리 혁명에 오직 해를 가져올뿐이다. 우리는 조선의 혁명적 앞날에 대하여 우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할망평회의에서 제시하신 항일투쟁의 위대한 군정후원에 막대한 지장을 줄수 있었고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에도 엄청난 후과를 미칠수 있었다.

어느날 대원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는 정세가 복잡해질수록 자기 나라 인민의

무릇 인간은 추억 수기에 산다고 한다. 내 나이 올해 아흔 살이다. 하지만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잊혀지지 않는 궁지로운 추억이 때때로 나를 환회에 휩싸이게 한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일이 다가오는 이즈음 나는 자주 어머니를 모시고 해방전 조국에서 보았던 나날을 보내던 때를 그려보곤 한다. 그러나 남편 항일의 나날처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한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각계각층 인민들을 새 조국건설에 불타일어나키신 김정숙동지의 인자하신 영성이 뜨겁게 안겨와 마음을 진정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을다.》**

어머니수령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높이 받드시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후 조국땅 방방곡곡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시며 참으로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

시켰다. 특히 그이께서는 함경북도의 여러 단위들을 찾다찾으며서 불변불류의 정력적인 활동을 벌이시였다. 그 나날 어머니와 함께 있던 나에게는 잊지 못할 이야기들이 간직되어있었다. 그중에서도 그렇게 보고싶어하던 고향을 지적에 두시고 어머니수령님의 새 조국건설수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 로동계급부터 찾으신 김정숙동지의 모습이 나의 감동으로 얼룩이 자아낸다.

주체 34 (1945)년 12월 어느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를 모시고 부령의 한 공장부현장을 돌아본 우리 고부산세멘트공장으로 향하였을 때였다. 우리는 큰길에서 고부산세멘트공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이르자 차를 세우게 하고 김정숙동지께 여기를 서 회평까지는 멀지 않으니 회평에 먼저 들렀다가 오던 길에 공장에 가보는데 좋겠다고 공정을 드리며 회평쪽으로 차를 몰라고 운전사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다급히 운전사를 만류하시며 조용히 차에서 내리시였다. 그러시고는 뒷발차기 차앞으로 걸음을 옮기시더니 회평쪽을 이속도록 바라보시였다.

간고한 항일의 나날 총록한 이 울부짖는 격전장들, 밀영의 우등불가에서 대원들과 함께 그려보시며 어느 한시도 잊으실수없는 고향이 아니랴, 잠시후 김정숙동지께서는 안타까와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지금 장군님께서 새 조국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를 실현하시기를 위하여 끼니도 휴**

식도 잊으시고 일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어찌... 고향부터 찾았습니까. 나는 여기 일을 하루속히 끝내고 평양으로 올라가 장군님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김정숙동지께서는 회평에는 이따가 쫓겨와 활짝 필 때 가보라고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평으로 향하여 이 길목은 벽사의 갈림길로 영원히 남아있게 되었다.

후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생애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김정숙동무는 해방은 되었으나 나라의 정세가 복잡하여 어떻게 한시인들 자리를 뜨셨는가 하고 하면서 생전에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에도 가지지 못하고 일가친척들을 찾는데도 미루어온 총실한 혁명동지이라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정령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는 혁명전사의 생명도 영예도 어머니수령님을 충직하게 만드는 길에 있음을 진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 길에서 자신의 모든 기쁨과 행복을 찾으신 위대한 여성혁명가이시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불같은 애국심을 거름으로 삼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르시는데는 오늘날의 강성대국건설전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리라!

이것이 어머니의 탄생일을 맞으며 혁명의 1세대들이 후대들에게 하려있는 당부바이다. 항일혁명투사 김옥순

유일한 단원들이 선행고전가들의 이론을 놓고 우리 나라에서 로동계급이 령도계급으로 되는 근거를 재나눔으로 논증하려고 하였다.

이날 학도론에 참가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이 문제는 이미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

무》를 발표하시어 명백하게 밝혀주었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였다. 령도계급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깊이 연구해보면 혁명에서의 령도계급은 수가 많고 적은데 의해서가 아니라 그 계급의 선진사상, 선진적역할에 의하여 결정된다는것을 알수 있다.

조선의 로동계급은 수적으로는 적지만 혁명투쟁에 가장 결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으며 강한 혁명성과 조직성을 가진 계급이기때문에 비록 수는 적다 하더라도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될수 있다. ...

학습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기준으로 하여 누구나 알아들기 쉬운 말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풀어나가시는 김정숙동지의 토론을 들으며 사명관동지의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할 수 있는 결의를 다지였다.

어느날 도전리 부녀회원들이 유격대에 보내려고 장만한 종이풍구가 악질적인 정안군 놈들의 수색과정에 발견되었었다. 김정숙동지의 링기움번에 의해 마을사람들의 신변은 담보되었으나 그 대신 녀사께서 적들에게 체포되시였다.

적들은 혁명군공작원이 틀림 없다고 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본부가 있는 곳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앞에는 회생이나 아니면 탈출이나 하는 두 길만이 놓여있었다.

인민들의 생명을 위해 자기 희생의 길을 택하신 김정숙동지를 구원하기 위해 조직에서 경찰사장에 적화교섭을 들이었던 김정숙동지에 대한 인민들의 다

합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혁명을 쟁취적으로 끝까지 수행하려는 의지와 신념을 가져야 한다. 반드시 어떤 큰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만 나라를 찾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대의존의 사상으로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 민족의 발전과 우리 혁명에 오직 해를 가져올뿐이다. 우리는 조선의 혁명적 앞날에 대하여 우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할망평회의에서 제시하신 항일투쟁의 위대한 군정후원에 막대한 지장을 줄수 있었고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에도 엄청난 후과를 미칠수 있었다.

어느날 대원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는 정세가 복잡해질수록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혁명을 쟁취적으로 끝까지 수행하려는 의지와 신념을 가져야 한다. 반드시 어떤 큰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만 나라를 찾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대의존의 사상으로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 민족의 발전과 우리 혁명에 오직 해를 가져올뿐이다. 우리는 조선의 혁명적 앞날에 대하여 우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할망평회의에서 제시하신 항일투쟁의 위대한 군정후원에 막대한 지장을 줄수 있었고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에도 엄청난 후과를 미칠수 있었다.

어느날 대원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는 정세가 복잡해질수록 자기 나라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신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장군대에 계시면서 조국해방전쟁승리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신 60돐 기념보고회가 21일 항학혁명사적지에서 진행되었다.

장군대대 당, 정전, 경제기관, 근로단체책임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는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최기룡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39 (1950)년 11월부터

12월까지 만포군 고산진(당시)을 비롯한 장강도의 여러곳에 계시면서 인민군대 대반공적투쟁을 조직하시어 조국해방전쟁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비롯한 회의들을 조직하시면서 전체 인민을 조국해방전쟁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 불타일어나시였으며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시였다고 그는 말하

는 강조하였다. 그는 승리한 조국의 메일을 그려보신 어머니수령님께서 전후복구건설준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을 이끄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해 바치신 불멸의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숙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는 장군님께서 선군령도의 나날 고산진, 연풍, 함학혁명사적지를 비롯한 사적지들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영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궁지를 간직하고 더욱 수령님의 진술을 견결히 고수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숙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총구적승리를 위하여 여세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영화를 통해 경애하는 김정숙동지를 기억하시어 《위대한 평장을 모시여》 (25) 상영

위대한 평도자 김정숙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1950년 즈음하여 기록영화 《위대한 평장을 모시여》 (25)가 22일 인민문화관에서 상영되었다.

국가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 근로단체, 생, 중앙기판일꾼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영화를 관람하였다.

영화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숙동지께서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받들어 한생을 바친 전사들에게 크나큰

삶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결한 의리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 혁명은 위대한 동지에게 역사로 빛나고 있음을 더욱 절감하게 하고있다.

전체 관람자들은 영화를 보면서 위대한 김정숙동지께 무한히 투명한 선군혁명동지로서 튼튼히 준비하며 당의 명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의지로 가슴 불타왔다.

【조선중앙통신】

